

비즈 프리즘 | 집에서 음성으로 자동차 제어 '홈투카'

“아리아, 지니야~시동 켜줘!”...말만 하면 된다

SKT·KT, 현대기아차와 제휴 '홈투카' 발표
 차 시동·문 개폐·경적·전기차 충전 등 제어
 차에서 음성으로 가전 제어 '카투홈'도 제공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을 이용해 집과 자동차를 연결하는 서비스 경쟁이 치열하다. 빠르게 성장하는 '커넥티드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마다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전세계 커넥티드카 관련 시장이 2030년에 1조5000억 달러(약 1702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뜨거운 분위기를 반영하듯 24일 SK텔레콤과 KT는 일제히 인공지능(AI) 기기를 활용한 '홈투카' 서비스를 발표했다. SK텔레콤의 누구, KT의 기가지니로 집 안에서 음성을 통해 편리하게 자동차를 제어하는 서비스다. 현대기아차의 커넥티드카 서비스인 블루링크, UVO와 연동하는 방식이다.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를 통해 첫 선을 보인 홈투카 서비스는 8월 출시 예정인 현대차의 신형 투싼을 포함해 현대기아차에서 출시하는 신형 자동차에 모두 적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현대기아차 중 블루링크와 UVO가 탑재된 차량은 정기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홈투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집에서 음성만으로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끄는 것부터 문 개폐, 비상등 점멸 및 경적 울림, 전기차 충전 등 자동차의 각종 기능을 제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요즘 같이 무더운 날씨라면 “내차 온도를 20도로 맞춰줘”라고 말하는 것만으로 탑승 전에 차량 내부를 시원하게 만들 수도 있다.

SK텔레콤은 이미 '카투홈' 서비스도 6월부터 제공하고 있다. 홈투카와는 달리 차량 안에서 모바일 내비게이션 'T맵X누구'를 통해 음성으로 집의 가전기기를 제어하는 것이다. SK텔레콤 스마트홈 계정을 누구 애플리케이션에 등록하면 집의 공기청정기, 에어컨, 보일러, 세탁기, 스마트플러그 등 15종의 스마트홈 기기를 제어하는 것이 가능하다. SK텔레콤은 현대기아차의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서비스도 내년 상반기 출시를 목표로 개발 중이다.

SK텔레콤 조영훈 홈사업유닛장은 “스마트홈이 자동차에도 적용돼 고객들에게 더 많은 편의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T 기가 IoT 사업단 김준근 단장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같은 정보통신기술(ICT)과 서비스 역량으로 커넥티드카 분야의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고 말했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SK텔레콤은 '누구'(위쪽), KT는 '기가지니'를 활용해 집 안에서 음성으로 자동차를 제어하는 홈투카 서비스를 선보였다. 사진제공 | SK텔레콤·KT

한눈으로 보는 경제

24일

코스피지수	2280.20	▲	+10.89
코스닥지수	761.57	▲	+4.61
日 닛케이 지수	2만2510.48	▲	+113.49
中 상하이 종합	2905.56	▲	+46.02
국고채 금리 (3년물, 연%)	2.09	▲	+0.01
환율 (원·달러)	1134.50	▼	-0.50
국내금값 (원/그램)	4만4681.43	▼	-129.16

KT, '네트워크 블록체인' 세계최초 공개

KT는 24일 서울 광화문 빌딩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세계 최초로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적용한 'KT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공개했다.

처리속도가 떨어지는 기존 퍼블릭 블록체인이나 보안에 취약한 프라이빗 블록체인과 달리 전국의 초고속 네트워크에 블록체인을 결합해 성능과 신뢰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했다는 것이 KT 측 설명이다.

KT는 2019년 말까지 TPS(초당 거래량)를 최대 10만까지 끌어올릴 예정이다. KT는 이날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을 기존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해 IP가 아닌 고유 ID 기반 네트워킹으로 연결과 동시에 바로 본인인증이 가능한 기술을 공개했다. 이를 사용하면 해킹이나 개인정보 도용, ID스 같은 공격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T는 네트워크 블록체인을 유무선 인프라와 5G 등 차세대 네트워크는 물론 미디어와 에너지, 금융, 재난·안전·보안, 기업·공공 등 5대 플랫폼 사업영역에도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6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블록체인 기술 발전전략'에 따르면 국내 블록체인 시장은 2017년 500억에서 2022년까지 약 1조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추산된다.

김명근 기자

'DMZ 평화관광' 본격화...지역 명소·음식 통합홍보

문광부, 접경지역 관광활성화 발표

남북 긴장완화에 맞춰 비무장지대(DMZ)를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분주하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함께 6·25 전쟁 정전 65돌을 맞아 비무장지대 접경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통합홍보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인천(옹진, 강화), 경기(김포, 파주, 연천), 강원(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비무장지대 접경 유관지자체의 대표 관광자원과 음식, 주요 행사 등을 통합홍보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통합홍보 대상인 관광자원과 음식으로는 인천 옹진의 '두무진, 꽃게'를 비롯해 강화의 '평화전망대, 젓국갈비', 김포의

'아트빌리지, 장어구이', 파주의 '임진각, 장단풍', 연천의 '한탄강 관광지, 한탄강 매운탕', 강원 철원의 '고석정, 오대쌀밥', 화천의 '평화의 댐, 어죽·매운탕', 양구의 '두타연, 시래기', 인제의 '자작나무숲, 황태구이', 고성의 '통일전망대, 활어회(물회)' 등 10건이다.

문체부는 '비무장지대(DMZ) 평화관광'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작가·여행가 등) 컨설팅, 여행주간 및 국내외 박람회 연계홍보, 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여행 활용, 관광수용 여건 개선을 지원한다. 아



올려 편 관련 부처와 협력해 국내외 관광객들이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을 지속적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오뚜기, '2018 화천 토마토축제' 후원

오뚜기가 8월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토마토 재배지로 유명한 강원도 화천에서 열리는 '2018 화천 토마토축제'를 후원한다.

'화천 토마토 축제(사진)'는 강원도 화천

군 지역의 대표 농산물인 화천 토마토와 지역홍보를 위해 기획된 행사다. 매년 15만명 이상이 찾는 정도로 국내 여름철 대표 지역축제로 자리잡았다. 오뚜기는

1000인분의 토마토 파스타를 참가자들과 함께 나누는 '오뚜기와 함께하는 천인의 식탁' 이벤트를 진행한다. 또한 오뚜기 홍보존에서는 다양한 오뚜기 제품 소개와 오뚜기 컵밥, 아이스티 등 제품 시식 코너도 운영한다.

원성열 기자



교육·퍼즐

에듀윌

자격증 합격 후 취업하려면?

강주현의 퍼즐월드

WWW.경품광고퀴즈.kr WWW.매직스도쿠.kr

주택관리사가 되고 싶다면 '동문 파워'를 활용하라!

“합격 후 진로 고민을 하던 시기에 에듀윌 합격자 모임에 참가했다가 채용 박람회나 위탁사 등에 대한 정보를 얻고 취업에 성공했어요” 재작년 시험에 합격해 모임에 꾸준히 참석해 온 한대희 관리소장의 사례다. 주택관리사로 활동 중인 아파트 관리소장들은 주택관리사가 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인맥'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택관리사 수험생들은 일부러 합격 동문이 많은 교육기관을 찾기도 한다. 에듀윌의 경우 250페이지에 달하는 인명록을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인명록에 등재된 합격자들이 모두 취업이나 취업 이후에 활용할 수 있는 인맥이 되는 셈이다.

또한 주택의 전반을 관리해야 하는 관리직인 주택관리사는 실무 초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수험 생활 동안 열심히 외운 용어와 법규들은 주민들의 크고 작은 분쟁 앞에서 의미를 잃기도 하기 때문에 합격 후 주택관리사로 활동하는 일은 지식보다 경험을 더 필요로



한다. 이럴 때 선배들의 경험에서 나온 조언들이 값질 것이다. 대부분의 선배 합격자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나 건물의 동 대표, 동 대표 감사 등을 미리 경험해보는 것도 현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 조언한다.

이에 수험생들은 학원과 온라인 강의 출신 합격자도 이루어진 합격생 네트워크가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권을 비롯해 충청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까지 전국적으로 뻗어 있는 기관을 선호한다.

에듀윌 본사는 작년 동문회 사무국을 공식 출범했다. 이는 동문회 관리를 더욱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하기 위함이다.

이수진 기자 sujini22@donga.com

■ 스도쿠문제

	9	8		1	3			
			9	6			2	
2			4					9
3	8			6		9	2	
			5	8				
	6	9	2			5	8	
9				5				7
6			7	9				
		7	6			1	9	

			6	7		3	2	
			2	1			6	
7	3						8	1
2				5			7	9
			4		6			
3	5			7				6
1	2						5	8
		3			1	9		
		8	5		7	3		

■ 스도쿠정답

8	6	1	2	7	9	5	8	4
5	8	4	7	6	3	1	2	9
7	9	2	4	5	1	8	7	6
8	5	7	4	2	8	6	9	1
1	8	9	6	5	2	7	4	3
4	2	6	7	9	1	9	8	3
6	7	5	8	4	4	6	6	2
9	4	8	3	7	1	1	6	8
2	1	3	7	6	5	8	4	9
4	9	6	1	2	8	8	7	5
8	5	7	4	5	9	6	2	1
9	7	8	6	2	2	1	5	3
3	2	9	1	4	7	6	8	
6	7	1	8	5	3	5	4	2
1	1	4	8	1	4	8	1	7
7	8	9	4	1	1	2	8	6
5	8	2	3	8	7	9	6	4